



부산상공회의소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년 8월 7일(수) 배포 즉시

담당 : 총괄경영본부 총무팀

김경민 차장(990-7028)

2024년도 목민상공장학금 수여식 개최

故 이원갑 부산방직 창업주의 유지로 시작된 장학회

- ▶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역임 당시 부산상의 직원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 표시
- ▶ 유족들이故 이원갑 회장 작고 당시 들어온 부의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하면서 시작
- ▶ 24년째 부산상의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
- ▶ 이동건 부방그룹 회장 매년 수여식 참석하여 자리 빛내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7일(수) 11시, ‘2024년도 목민상공장학금 수여식’ 을 개최하였다. 올해 장학금 수상자는 미국 아칸소 주립대 글로벌공급망관리 4학년 심근영 양이 선정 되었으며,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이동건 부방그룹 회장을 비롯한 목민상공장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수상자를 축하했다.

목민상공장학금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역임한故 이원갑 부산방직 창업주의 유지를 받들어 지난 1989년 고인 작고 후 들어온 부의금을 유가족이 부산상의에 장학금으로 기탁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부방그룹이 추가로 장학기금을 출연하면서 목민상공장학회의 틀을 갖추게 되었고, 2000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학생 선발은 고인이 생전에 부산상의 직원들이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처우가 그에 미치지 못해 늘 마음이 쓰인다는 말을 들었다는 유족의 뜻에 따라 부산상의 직원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매년 1명 선정하여, 장학증서와 장학금 500만원을 수여하고 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목민 이원갑 회장님이 보여주신 부산상공회의소에 대한 큰 사랑과 후대 인재양성에 대한 깊은 뜻에 무한한 존경의 뜻을 표한다” 면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학업에 더욱 정진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하였다.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민간봉사단체인 국제로타리클럽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이동건 부방그룹 회장도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탄생한 목민상공장학회가 잘 운영되어서 장학회 산하에 목민장학금 외에도 더 많은 장학금이 생겨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기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장학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는 덕담을 건넸다.

한편 장학금 전달식이 끝난 후 양재생 회장은 이동건 회장의 진심어린 지원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순금으로 제작된 부산상공회의소 의원배지를 직접 달아주었다.